

Gary Meadors 박사, 신의 뜻을 아는 것, 세션 14, 기도의 역할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성경 신학에 대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에는 주관적 도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3부의 마지막 섹션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도전은 양심, 성령,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했던 섭리의 역할, 13번, 그리고 지금은 기도의 역할, GM 14입니다.

여기는 GM 14입니다. 슬라이드 수는 적지만, 저에게 매우 중요한 노트가 몇 개 있는데, 이 강의에서 다룰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생활의 훈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됩니다. 물론 모든 서신은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자료를 다룰 때조차도 기도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기도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어떤 나쁜 순간에는 그들은 신에게 불평합니다. 그들은 적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우리는 저주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적들에게 심판을 내리라고 부르지만, 계시록도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욕기를 보세요 .

성경은 성인들의 투쟁을 폭로하는 종교에 대한 흥미로운 책 중 하나입니다 . 그리고 기도는 항상 그러한 영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 모임에서 때때로 매우 거만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것을 계속해서 듣고, 때로는 우리의 역사의 깊이에서 우리의 투쟁을 실제로 반영하지 않는 다소 유치하고 반복적인 요청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 그것들은 신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그 사람이 신이 그 기도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슬라이드를 우리의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그것은 성찰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반성을 위한 텍스트. 그리고 안경을 찾고 있어요. 오, 여기 있어요.

내 얼굴에 있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빨간 셔츠를 입고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빨간색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예수의 탄생 때문이 아닙니다. 빨간색은 왕족의 색이고, 보라색은 왕의 탄생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작은 모자를 찾아 쓰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마지막 강의를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반성을 위한 글입니다.

성찰을 위한 텍스트. 좋아요. 신약성서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언어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두 번뿐입니다.

언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 주기도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그것이 모범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는 모범 기도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확장할지라도요.

그 기도문의 말씀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당신의 기도는 아니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곳은 여기입니다. 다른 곳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한다면, 그것은 기도문이고, 그것은 그의 뜻에 따라 구함으로써 기도를 조건지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시는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신이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존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도덕적 영역에서 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주님께 가서 유혹을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글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이 처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유일한 두 구절입니다.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것일 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세 번밖에 없는데, 모두 요한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14에서 이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14.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고, 이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읽는 모든 구절은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당신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은 당신에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경, 아니 정확히는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모세부터 신약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다른 개인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퍼 로마 담화라고 부르는 것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상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만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유다는 일찍 떠났습니다. 그는 실제로 주님의 만찬 전에 떠났습니다. 그는 식사의 일부로 떠났고,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14에서, 우리가 어퍼 로마 담화라고 부르는 것에서,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리고 무엇이든, 무엇이든, 저는 다시 미국 표준판을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을 구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니라.

이제, 당신은, 글썄요, 그것은 기도의 약속이고, 그것이 제가 주장할 기도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죄송합니다. 그 약속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떠나신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지시를 내리실 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고생, 등등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하지 않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적이 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기 말에 바로 그 사도들의 전도와 가르침의 측면에서 매우 활동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당신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주소는 나에게 흔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좋겠지만, 당신은 이 구절을 경험했고, 아마도 이 구절을 주장하고 기도하며, 주님, 저는 요청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문제는, 당신이 묻고, 묻고, 묻고, 신이 주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희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돌아와서, 신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게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문맥에 맞춰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초기의 측면을 조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른 구절도 다락방 담화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23. 요한복음 16:23.

우리는 이전에 다른 맥락에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볼 것이고, 네 마음은 기뻐할 것이다. 네 정신, 네 온 몸, 네 온 복합체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네 기쁨은 아무도 네게서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는 내

이름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느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여기서도,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맥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건 당신이나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수 있는 일반적인 진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당신에게 정말로 맞지 않는 맥락에서 무언가를 주장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들에 주의하세요.

요한일서 5:14,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라. 이제 그것은 이미 조건지어졌다. 그것은 의지와 기도가 연결되는 구절 중 하나이다.

그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하라. 글썄,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도덕적 의지와 반드시 연결시키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님,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묻는다면, 세상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에서 거짓된 기대일 것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이 경우, 나는 그것이 그의 주권적인 뜻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미리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이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미끼 같은 거잖아요. 제가 이를 수 없는 기대를 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로마서에서 이 구절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과 아버지께 드리는 당신의 기도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끔찍한 질병으로 죽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욕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 통제의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사촌으로서 예수의 세례 때 본 것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7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신을 상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시 생각하건대, 여기서도 주권적인 뜻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기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기자가 많은 것에 대해 한 것처럼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저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의 결정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그러니 성찰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0:7. 그것은 예수님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8-9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저는 주님을 세 번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말입니다. 바울의 능력과 어쩌면 자유를 방해하는 무언가였지만,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능력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는, 그는 나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바울과 관련된 이게 뭐였을까요? 글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 생각은, 이 일이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채로 버려진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다른 곳에서 그의 친척들이 그의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는 눈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질 때, 그들은 당신의 발에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리에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완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니, 나의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안식하는 것보다 나의 약함을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상함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라. 내가 약할 때에야 강함이니라.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언급하겠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대해 고민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고, 영원 전에 그 자신도 그 일부였던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이 문제를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과 바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에서요. 그러니 그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말해주지는 않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신은 당신이 원하는 기도에 대한 답을 주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응답은 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결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당신에게 언급한 책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결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26과 27은 비교적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26, 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 왜냐하면 그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어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버전에서, 당신은 그것을 기울임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버전에서는 공식적인 번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없지만, 그게 의미입니다. 신에 따라, 신의 뜻에 따라. 그리고 28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28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암기할 정도인데,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26과 27은 성령이 우리 기도의 감정을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 감정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삶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는 그럴 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성실성은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실 것입니다.

다른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잠깐 여기서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7에서 12절.

당신은 그것을 보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리 그것을 보는 이점이 있습니다.

노트를 살펴보고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더 똑똑했다면, 이것들을 사실로 표시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7:7-12.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헛되지 않은 반복을 사용하세요. 이제, 그것은 문화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헛된 반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헛된 요청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비교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산상 설교에 나오는 기도 모델이며, 기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사용했던 차트를 보여드려야 했을 텐데,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요한일서 5장은 이미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0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 이 구절이 많이 오용되는 걸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맥락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텍스트가 오용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평평한 성경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청중에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반대의 부수적인 이점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은 이것들에 익숙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가 새로운 목사에게 설교하라고 추천하는 첫 번째 책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가 도덕적 가르침에 매우 강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매우 잘 반영하는 산상 설교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의할 또 다른 주제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 시련과 유혹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같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번역본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시련과 유혹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증거가 인내를 이루며,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함을 아는도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만일 끊지 아니하면 주시리라 .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는 데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밀려가고 요동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은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당신이 시련, 깊은 시련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구절을 기억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글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야고보가 기도가 마치 당신의 시련을 이해하게 해줄 정보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지팡이와 같다고 말하고자 했다고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맥락에 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은 시련에 대한 것이고, 유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련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 삶에 시련을 가져옵니다.

시련은 인격 개발을 위한 요청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그 상황에 맞설 때 우리를 우리로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시련에 직면하면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시련에 직면했을 때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성숙 수준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시련에 직면해서 화가 나고 화가 나고 형편이 나빠지면, 그것은 우리의 성숙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즉 펑크난 타이어, 사고, 암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안식이라면, 우리는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실,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시련이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으며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은 신이 직접 조종한 것이고, 어떤 것은 깨진 세상에서 사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지혜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련에 대한 지혜는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이 그 변화된 마음에 시련을 가져오고, 스스로에게 묻는 데서 나옵니다. 나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당신이 직면한 시련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은 당신이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 성경 전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일하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 90% 이상이 시편으로 달려간다고 보장하겠습니다. 충분히 오래 읽으면 시편 기사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시편 기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다루고 큰 소리로 생각하며 기록되었고, 성경의 일부입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이 시점에서, 기도에 대한 노트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신의 뜻이라고 불리며, 노트의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참고문헌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는 Terrence Thiessen이라는 사람이 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참고문헌입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B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제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들을 빨리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즉 그의 도덕적 뜻이든 그의 주권적 뜻이든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기도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의 도덕적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화가 난 그 사람을 총으로 쏘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도덕적 뜻이 그것을 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도덕적 뜻과 그 주체에 부합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기도문이 그 일을 스스로 합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인사를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함은 바울의 인사를 지배하는 핵심 용어 중 하나이며,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특히 소아시아에서 멘토링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삶의 기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통과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감사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이 그들을 신과 가깝게 유지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말할 것입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사고, 뇌

또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그는 겨울에 검은 얼음을 치고, 차를 뒤집었고, 의사들이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뇌부종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글썬,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면에서 장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일어난 한 가지 변화는 그가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의 주권적 뜻과 그런 종류의 것들을 사고 전보다 더 많이 인식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우리를 신께로 이끕니다. 독감에 심하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죠? 우리의 일시적인 질병이죠.

기도는 감사하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대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감사하는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로마서 8:26과 27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썬,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하세요. 그저 신에게 솔직하세요.

당신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중재하는 것은 성령의 의무입니다. 한 작가가 말했듯이,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중재하고, 감독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청원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님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다음 요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기대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내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강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내 영혼에 성실함을 갖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을 속일 수 없으니 시도하지 마세요. 주님께 솔직하고 개방적이 되세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 번째, 기도는 삶의 상황에 대한 성숙한 반응입니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친구에게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는 갇혀 있고, 가스 냄새가 나고, 차에서 나올 수 없고, 눈알은 실제로 뺨에 있습니다.

튀어나왔어요. 그의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구절,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감사를 포함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지만 그는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신의 성숙함에 의해 조건지어졌어요. 기도에는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잘못 기도하든 뭐든, 하느님께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영 센터 세션에 있습니다. 영이 말합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그는 그것에 대해 어리석은 편입니다.

당신은, 글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실은 기도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솔직한 감정을 신에게 가져갑니다. 그에게 부르짖고, 시편을 읽고, 시편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 제한됩니다. 또한 그의 도덕적 뜻에 의해 제한됩니다. 옳지 않다고 아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에 대한 일종의 사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본성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주권적인 뜻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특정 영역에 있지 않을 때는 경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주권적인 영역에 있으므로 항상 존재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당신은 내 욕망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의 요점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성취는 주권과 도덕적 의지에 의해 구속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바꾸거나 지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그 과정의 일부로 정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정한 것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머리에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기도와 마법의 효능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일종의 마법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올바르게 기도만 하면 신이 해 주실 겁니다. 마법은 신의 뜻을 통제하거나 조종하여, 특히 주문, 주문, 의식이나 제의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신의 뜻을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유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마법이 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기 위해 24시간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글썄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을 조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룰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과 그의 주권적 의지입니다. 기독교 기도는 기도가 신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의지의 투쟁을 포함하며, 항상 기도를 신의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신이 주신 수단으로 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신의 계획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든, 그걸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기도하세요.

기도는 삶의 필수 요소여야 합니다. 복음 기도 약속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맥락에 따라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는 것의 변형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 성령께서 그 기도를 아버지께 전달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삼위일체의 이미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가족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적어도 인간적 수준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복음 기도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세기에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작은 것들을 그들만의 것처럼 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이 공식들을 사용하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의 성공에 관한 한 보고, 그들의 믿음에 관한 한 보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는 것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서 당신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글을 쓰고, 출애굽기 34장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나오는데, 32~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돌게 하신 후의 기록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에 대해 설교하는 설교가 있는데, 엑소더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32에서 34까지 함께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는 34에 들어가서 그에게 두 개의 돌판을 말하는데, 그가 깨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깨뜨렸을 때, 그것은 단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은 계약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계약서는 점토 돌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졌을 때, 계약은 깨졌습니다. 그는 만남의 천막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징적인 것은 신이 당신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개의 돌판을 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돌판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름 속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이 여기서 반복됩니다. 6절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주님 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주님, 주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부사적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 반복되는 이유는 두 번째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을 풀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신에 대한 흥미로운 폭로가 있습니다. 신이 누구이고, 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다 훑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하는 명사는 동사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히브리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합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예배의 한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는 땅에 몸을 숙여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고문헌도 있습니다. 일곱째,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 감시됩니다.

주기도문을 연구하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개요를 작성하세요.

그것이 신에게 말하는 것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하세요. 신은 당신의 기도에서 먼저 오고 우리는 마지막에 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목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듣는데,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르지 않아요. 항상 제 이름은 지미라고 하고, 당신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기도에는 항상 쥘, 쥘, 쥘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뜻,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 감시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책도 몇 권 있습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진짜 책을 찾아보세요. 저는 제 학생들이 논문에서 설교자의 해설을 사용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훌륭한 일을 하지만, 그들은 2차 또는 3차 출처입니다. 당신은 더 1차적인 출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그 텍스트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말할 수 있는 좋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도들에 의해 감시됩니다. 우리는 서신 문헌과 성경의 모든 부분과 요한 계시록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트에 제가 쓴 기사를 포함시켰습니다. The Bible in Prayer 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책의 주요 기사를 Giving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책은 *Giving Ourselves to Prayer(기도에 우리 자신을 바치다)* 라는 제목입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기사는 The Bible in Prayer(기도 속의 성경)이고, 그 기사는 귀하의 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읽어보세요.

Decision Making God's Way 책 의 10장에서 라고스에서 이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확장된 버전을 쓸 예정입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을 주시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 기도, 그리고 신의 뜻에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정화하고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변화된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우리가 어떻게 열고 닫는지 설명드렸지만, 이 기회에 멈춰서 기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우리의 불신을 돕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심지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의 짐과 기도를 포함시키는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당신의 종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기 필요를 해결하지만, 그것은 당신께 드리는 예배와 복종의 한 형태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보내세요